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전문
02)720-9600

佛敎新聞

MAYA TOUR
행복한 순례의 길!
마야투어
02)722-9001
www.MAYATOUR.kr
머물지 않음으로 그 이름을 나그네라 한다 - 능엄경 중에서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8년 11월 15일 (2014년 / 단기 4347년 음력 윤9월23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3058호 토

의장 성문스님…16대 종회 출범

수석부의장 자현스님·차석 오심스님
임기 5년 교육원장 현응스님 재선출

조계종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인 제16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 성문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수석부의장에 자현스님, 차석부의장에 오심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지난 11일 오전 중앙종회의원 80명(1명 결원) 중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0회 정기회를 개회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임시의장 지홍스님에게 의사봉을 넘겨받은 신임 의장 성문스님은 "16대 중앙종회는 종단적, 시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의원 스님들이 의제 안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의장 자현스님과 오심스님도 "의장 스님을 보필해 화합으로 종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총무분과 등 각 상임분과 위원 배정 및 위원장 선출, 15대 사무처장 경우스님 재임명 등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또 지난 4일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교육원장에 현응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또한 위원장 지홍스님 등 종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 24명을 구성하고 △초심호계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직능대표선출위원 선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법 등 종법 제·개정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불기 2559(201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승가학원 이사, 감사후보자 추천 동의 △제7기 법계위원 위촉 동의 △제8기 고시위원 위촉 동의 △종단 표준의례 동의 △재단법인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 결의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종정감사를 위해 이날 오후 휴회를 선언하고 17일 오전10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열고 16대 중앙종회의 출범을 알렸다. 개원식은 개식,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의원선서, 개원사, 개원법어,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개원법어에서 "16대 중앙종회는 더욱 여법하고 큰 족적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오니, 원로 대종사님들의 고견을 지남(指南)으로 삼고 뭇 종도들의 중의를 구현해 나감에 있어 금언(金言)으로 받들지어라"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원사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비롯해 교구의 역할과 행정, 종무구조 개편, 중앙종회의 구성변화 등 종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종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제16대 중앙종회는 지난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으로 출범을 알렸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200회 정기회 개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원로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과 기념촬영을 하며 입법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시각장애인 점자 불교성전 화엄경 '보현행원품' 출간

장애인전법단, 수화동영상 이어 두 번째 결실

시각장애인불자들을 위한 점자 보현행원품이 제작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스님)은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점자 불교성전 출판기념식 및 장애인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장애인전법단은 지난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동영상 제작에 이어 2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불교성전(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제작을 완료했다. 그동안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도 점자로 된 불교서적이나 경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보현행원품과 수화동영상 법요집을 함께 독송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2부 축하공연에서는 승가원 장애아동의 방송댄스, 연화원 시각장애인들의 하모니카 피아노 연주, 원심회 수화공연 등이 이어졌다.

장애인전법단 단장 도륜스님은 "점자 보현행원품 발간으로 장애로 인해 신행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국 시각장애인 단체 및 맹인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불교성전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광주 전법활동 지원할 '빛고을 나눔나무' 창립

"지역 최대불사"…초대회장 연광스님

빛고을 광주지역 불자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불교공동모금회가 설립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스님)는 지난 3일 광주 불교회관 법당에서 '빛고을 나눔나무'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이날 빛고을 나눔나무 창립대회에서 광주지역 각 사암 스님과 지역 신행단체장 등 50여 명은 연광스님(증심사 주지)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정관을 확정했다. 초대 이사장 연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빛고을 나눔나무는 불교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와 불자들의 전법활동을 도와주는 단체"라며 "불교단체의 저변을 넓히고 불교 인프라를 구축해 호남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6월 불교공동모금회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사찰과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날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빛고을 나눔나무는 설립취지문에서 "광주지역 30만 불자들의 잠재된 역량을 모아 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최대불사"라고 전제하고 "지역 사찰과 신행단체, 불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아 다양한 불교시민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포교는 물론 지역불교의 대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눔나무는 이를 위해 후원회원 1080명 모집에 들어갔다.

나눔나무는 첫 사업으로 12월경 광주불교 송년의 밤을 개최해 지역 불자들의 화합과 소통한마당을 갖는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연 2회에 걸쳐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계층별 포교와 불교 NGO활동을 지원한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 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시작한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 시민과 사회복지기관간의 협동적인 조직이다. 공동모금의 주요한 기능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모금을 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절차에 따라 배분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보건, 레크리에이션 등 서비스에 협동적인 계획, 조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템플스테이 아이디어·논문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공모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젊은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을 모집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2014 대학생 아이디어 및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시행한다.

대학원생 논문 주제는 템플스테이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활용, 사찰문화 홍보 및 마케팅, 한국적 관광콘텐츠로써 사찰음식 등이다. 참가자격은 석·박사 과정 및 수료생 중 주 저자 포함 3인 이내며, 교수는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대상 1편에 상금 200만, 최우수상 2편에 각 100만원이 지급되며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국민 여가관광 프로그램 개발, 템플스테이 홍보 및 해외마케팅 방안, 사찰음식을 활용한 한류 음식관광 활성화 등이다. 재학 중인 대학생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상 1편에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편에 각 상금 7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참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8일부터 21일까지며, 논문마감일은 2015년 1월5일까지다. 발표 및 시상은 2월6일 동국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社告

2015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5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2014년 11월 10일(월)~12월 10일(수)까지
- **응모대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시·시조 부문(5편 이내)
- **상 금**:
  - -단편소설 500만원
  - -평 론 300만원
  - -동 화 300만원
  - -시·시조 30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당선작발표**: 2015년 1월 1일 신년특집호(당선자 개별통보)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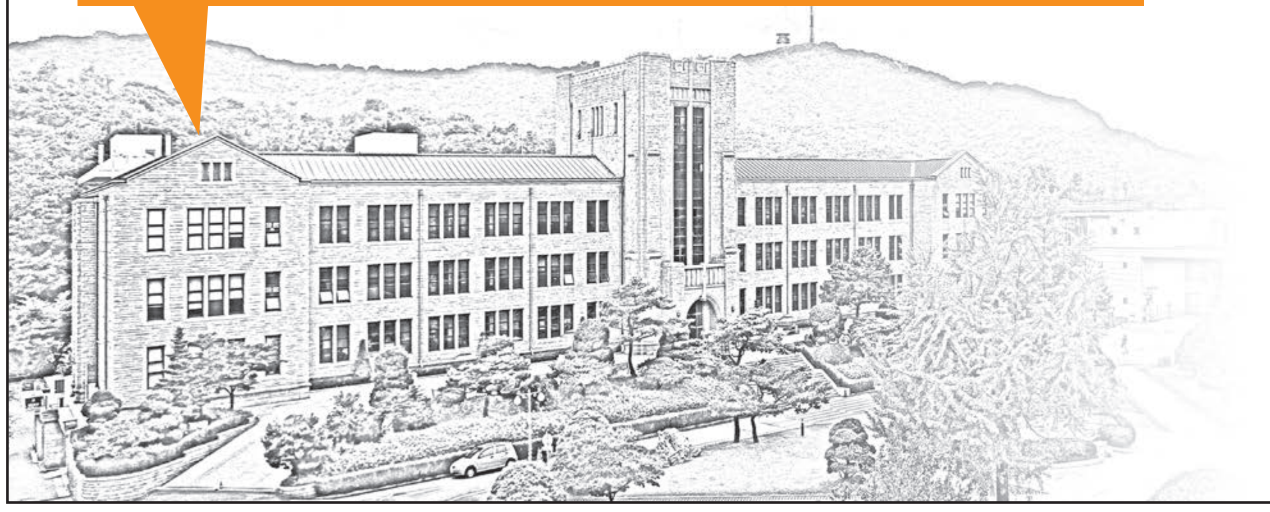
1. 겉봉투에 신춘문예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임을 명기해 주십시오.
   서류봉투에 담아 접수 바랍니다. (일반우편봉투 접수 불가)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맨 첫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품내용 안에 이름 등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접수시 한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bud22@ibulgyo.com)

- **문 의**: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조계종 어떠한 정체성 갖춰야 하는가' … 불광 '교판칼럼' 주목 4면

건학 108 주년
변화와 혁신의 동국대학교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십니다



| 응모자격 |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으로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서류 |
- 지원서(지정서식) 1부 ※지원서 이력내용 공간 부족시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함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추천서(지정서식) ※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 접수기간 : 2014.11.20(목)~2014.11.21(금) 17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 (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

| 기타 |
-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총장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참고
- 문 의 (TEL) 02-2260-3005~7 (FAX) 02-2260-8973

dongguk UNIVERSITY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